흑자 82% 줄어…전남 13년만에 적자

한-EU FTA 발효 1년 무역 성적표

광주는 수출 늘고 수입 줄어 흑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 광주·전남 무역업체들의 대EU 성적표는 초라했다. 광주 업체들의 선전으로 가까스로 무역적자는 면했지만, FTA 이전보다 흑자 폭이 5분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9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2000년 이후 13년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23일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동안 광주·전남지역 무역업체들이 EU와 교역한 무역 규모는 총 56억1863만달러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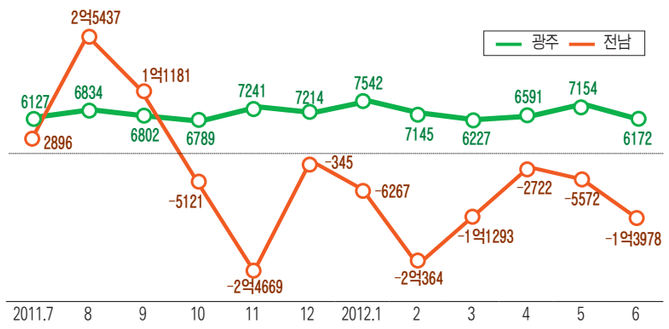
이 중 수출은 29억6440만달러, 수입은 26억5423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1017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FTA 체결 전 같은 기간 흑자 규모(16억6864만달러)의 18.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광주·전남의 대EU 수출은 26억8080만달러, 수입은 10억2216만달러로 16억5864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수출은 소폭(2억9644만달러) 늘어난데 비해 수입은 2.5배(16억3207만달러, 159.7%) 이상 증가, 흑자 폭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최근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FTA의 직격탄을 받은 셈이다.

FTA 체결 이후 전남지역 수출 19억979만달러, 수입 24억1794만달러로 5억815만달러 적자를 냈다. 체결 이전 같은 기간에는 14억8732만달러(수출 16억4732만달러, 수입 7억6001만달러) 흑자였다.

■ 한-EU FTA 1년 … 광주·전남 월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만달러)



이는 수출은 15.9%(2억6248만달러) 증가한 반면 수입이 무려 218.2%(16억5793만달러) 급증했기 때문이다.

광주는 FTA 효과를 톡톡히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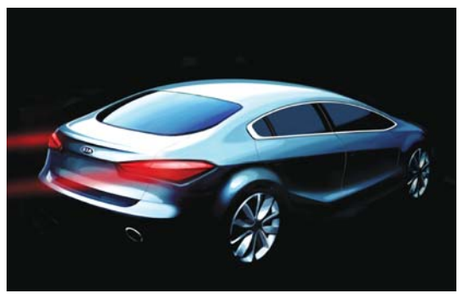
FTA 체결 이전 수출이 10억3348만달러에서 FTA 이후 10억5461만달러로 소폭 늘었지만, 수입이 2억6216만달러에서 2억3627만달러로 줄어 흑자 규모(7억7132만달러→8억1834만9000달러)를 키웠다.

품목별로는 전남지역의 경우 올들어 6월까지 대 영국 수입이 9억9466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03% 증가했다. 독일 수출은 6886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1% 감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준중형 신차 'K3' 외관 이미지 공개

매끈한 디자인 눈길…하반기 출시



기아자동차는 23일 준중형 신차 'YD(프로젝트명)'의 차명을 'K3'로 확정하고 외관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K3는 중형·대형 세단 K5·K7·K9을 잇는 차명이다.

전반적으로 매끈한 스타일로 디자인됐다. 전면은 개성과 강인함을, 측면 디자인은 역동성과 균형감을, 후면은 세련된 느낌을 각각 살렸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기아차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이벤트로 기아차 페이스북(http : //facebook.kia.co.kr)을 방문해 '좋아요'를 누른 고객 수에 따라 휠·후면·전면 등 외관 이미지를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K3를 숨겨놓은 큐브를 메가박스 코엑스점 앞 광장에 전시하고 페이스북에서 공개되는 단계에 맞춰 조금씩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K3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놀라운 상품성을 갖춘 하반기 국내 시장 최고의 기대주"라며 "국내 최초로 SNS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차 외관을 공개하는 마케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불산단에 목포대 캠퍼스 설립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4개 학과 이전 산업인력 양성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목포대 캠퍼스가 설립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대불과 오송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학생을 위한 배움터를 만드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만들어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불산단에는 목포대의 조선, 해양시스템, 기계, 신소재 등 4개 학과가 이전한다.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해상풍력센터, 첨단기술교육센터 등 37개 기관과 222개 기업이 참여해 근로자 평생 교육, 전문인력 양성, 산학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평생교육원, 건강가정센터, 문화센터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오송산단에는 충북대 약학과, 청주대 유전공학과,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등 5개 학과가 이전해 바이오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온실가스 거래제 1차 계획기간엔 기업에 무상할당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단계적으로 기업 부담을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배출권할당위원회가 정한 배출허용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1차 계획기간에는 목표량의 100%, 2차(2018~2020년)에는 97%, 3차(2021~2025년) 이후에는 90% 이하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무상으로 할당받게 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무상할당을 통해 산업계 부담을 줄이되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해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 경쟁이 치열한 철강, 반도체 등 수출업종은 세부 민감업종을 정해 예외적으로 100% 무상할당을 적용한다.

/연합뉴스

코스피 1,780대 폭락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49포인트(1.84%) 내린 1,789.44를 나타냈다. 이날 지수는 23.69포인트(1.30%) 내린 1,799.24로 장을 시작해 갈수록 낙폭을 확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6월 미분양 아파트 수도권 늘고 지방 줄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수가 소폭 감소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미분양 아파트수를 집계한 결과 총 6만2288가구로 전월(6만2325가구) 대비 37가구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1173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56가구, 대구 5564가구, 경남 4663가구, 부산 4448가구, 인천 4058가구, 서울 1698가구 등이다. 수도권의 미분양은 총 2만6929가구로 전달보다 334가구 증가했다. 경기도와 서울 등이 전월대비 각각 532가구, 125가구 감소했으나 경기와 인천지역에서 신규 미분양이 발생해 늘었다.

반면 지방은 분양가 할인 등 업계의 자구노력으로 전월(3만5730가구)보다 371가구 감소한 3만5359가구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 3만2909가구로 전월보다 928가구 줄어든 반면 신규 공급이 늘어난 전용 85㎡ 이하는 2만9739가구로 891가구 증가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2만6610가구로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합뉴스

대기업 신규채용 10명중 4명 지방대 출신

20곳 지난해 채용조사…전년비 12.9% 증가

지난해 주요 대기업 20곳이 신규 채용한 신입사원 가운데 42.3%가 지방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주요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대학 소재별 채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대졸(전문대 포함) 신입사원 2만5751명중 42.3%인 1만885명이 지방대 졸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주요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선발인원은 전년보다 12.9% 늘어났다.

지방대 출신 비중은 2009년 39.1%에서 2010년 38.8%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확대됐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중을 30% 이상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지방채용 규모가 이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도 지방대 출신 채용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대학 출신 채용은 2009년 4107명에서 2011년 6301명으로 53.4% 증가한 반면 수도권 대학 출신 채용은 2009년 9185명에서 2011년 1만2220명으로 33.0%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요 기업 20곳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차, 기아차,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롯데백화점, 포스코, GS칼텍스,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KT,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화, STX이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89.44 (-33.49)
▼ 코스닥지수	472.24 (-9.59)
▼ 금리 (국고채 3년)	2.82% (-0.06)
▲ 원·달러 환율	1,146.60원 (+5.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